�� 어른들을 위한 동화

《유메와 시로》 1장: 낡은 골목의 고양이들

오래된 골목엔 시간이 주저앉은 듯한 자리가 하나 있었어요.

벽은 물기를 품고, 바람은 숨을 죽인 채 틈새로만 흘렀죠.

그 자리엔 고양이 두 마리가 살았어요.

하나는 가느다란 몸, 조용한 눈빛의 암컷. 이름은 유메.

하나는 아직 어려 보이는 수컷, 늘 뒤따라 다니던 시로.

유메는 말하진 않았지만 늘 먼저 길을 골랐고,

시로는 말하진 않았지만 항상 그 길을 따라갔어요.

둘은 이름이 없던 시절에도 함께였지만,

이름을 얻은 건 먹을 것이 생긴 날부터였어요.

어느 날, 비린내 나는 종이봉투가 골목에 놓였죠.

오래된 손이 무심히 내려두고 간 그것.

고등어 한 토막.

유메는 조용히 내려가서 먼저 냄새를 맡았고,

시로는 유메의 눈치를 보다가 조심스레 옆에 앉았어요.

먹는다는 건 말보다 먼저 마음을 건네는 일이죠.

그날 처음, 인간은 그들을 보며 말했다고 해요.

“유메… 시로. 유메가 먼저고, 시로는 그 다음이지.”

그렇게 이름이 생겼어요.

냄새를 따라 나온 기억처럼,

따뜻하진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 온기처럼.

�� 어른들을 위한 동화

《유메와 시로》 2장: 시로가 길을 묻다

그날따라 유메는 늦게 일어났어요.

햇살은 담벼락에 얇게 붙어 있었고,

시로는 그 앞에서 몇 번이고 몸을 동그랗게 말았다가 펴곤 했죠.

“유메…?”

대답은 없었지만, 숨은 느껴졌어요.

조금 전보다 천천히, 무겁게.

시로는 처음으로 자기가 먼저 나가보기로 했어요.

유메가 다녀오겠다고 말한 적은 없지만,

언제나 돌아왔기에 이번엔 자기가 그걸 해보기로 한 거죠.

골목을 나서는 발은 가볍지 않았고,

길모퉁이는 예전보다 멀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고등어 냄새는 늘 그쪽에서 났다는 걸.

시로는 조심스럽게 걸었고,

사람 냄새가 나기 시작하자 한 번 멈췄어요.

그래도 발을 뗐죠.

가게 앞에서 오래된 손이 다시 종이봉투를 내려놓을 때,

시로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기다렸죠.

냄새는 비슷했지만, 오늘은 고등어가 아니었어요.

대신, 손은 살며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시로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지만,

유메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나도 다녀왔어.”

�� 어른들을 위한 동화

《유메와 시로》 3장. 처음 너를 본 날

시로는 고양이를 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고양이를 본 적은 있어도, 눈을 맞춘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창밖 난간 위에 무언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깃털처럼 가벼워 보이는데, 눈은 깊었죠.

유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시로는 그 이름을 알았어요.

처음엔 놀랐어요.

고양이는 도망치지 않았고, 시로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거든요.

그냥 서로 잠깐 멈춰 있었어요.

바람도 안 불고, 창문도 안 열렸고,

손도 닿지 않았지만,

시로는 그날—

누군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기분을 처음 느꼈어요.

그건 무섭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네가 여기 있는 걸 알아.”

그렇게 말해주는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시로는 아주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유메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골목 저쪽을 바라봤죠.

그쪽엔 또 다른 고양이가 있었어요.

작은 흰 점처럼 보였죠.

시로는 그 이름도 몰랐지만,

그 고양이가 자기를 보았다는 걸 느꼈어요.

�� 어른들을 위한 동화

《 유메와 시로 》 4장. 창밖의 고양이, 창안의 아이

다음 날 아침, 시로는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창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바람은 아주 조심스럽게 드나들었죠.

유메는 없었어요.

하지만 시로는 눈이 익은 자리를 바라보는 법을 배웠어요.

어쩌면 오늘은 안 올 수도 있고,

어쩌면 다시 올지도 모르지만—

기다리는 마음은 거기 그대로 있었어요.

그때,

골목 저편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움직였어요.

어제 봤던 그 흰 점.

유메가 바라보던 그쪽.

시로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문득, 그 고양이를 ‘시로’라고 불러도 될까? 싶었죠.

부르면 다가올까?

아니면, 다가오지 않아도 괜찮을까?

시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창밖으로 나서는 발걸음.

누가 보라고 시킨 것도,

누가 잡아 끈 것도 아니었죠.

그저 마음이 그쪽으로 움직였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 어른들을 위한 동화

《 유메와 시로 》 5장. 이름 없는 거리에서, 이름을 부르다

계단은 오래된 나무로 되어 있었고,

시로의 발소리는 작은 숨소리처럼 들렸어요.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시로는 누군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유메가 그랬듯이.

어제의 눈빛처럼,

이름 없는 존재의 기척이 어딘가에 남아 있었어요.

시로는 천천히 걸었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다시 뺐다가,

골목 중간쯤에서 멈춰 섰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아주 작고 천천히.

“시로…?”

고양이는 없었고, 아이도 없었어요.

아무 대답도 없었지만,

시로는 시로라는 이름이 공기 속에 남는 느낌을 느꼈어요.

그 이름은 아직 누구도 아니었고,

아직 무엇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부터, 이 거리엔 누군가가 생긴 것 같았어요.

�� 어른들을 위한 동화

《 유메와 시로 》 6장.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을 때

“시로.”

시로는 그 이름을 다시 한 번 불렀어요.

바람은 조용했고, 거리도 말이 없었지만—

그 말이 사라지진 않았어요.

말이 공기 속에 퍼지고,

눈은 골목을 더듬고,

마음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자,

아주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랄 것도 없이…

그냥 소리의 기척이었죠.

시로가 고개를 돌렸을 때—

저편 담장 위에 작은 실루엣이 하나 보였어요.

햇살보다 먼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유메도 아니었고,

어제의 그 흰 점 같기도 했지만,

시로는 그 존재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 시로다.”

시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그 존재는 그 이름을 입고 나타났어요.

그날 시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시로도 다가가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를 한참 바라봤죠.

그리고 시로는 마음속으로 물었어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을 때

넌 나에게 와서… 무엇이 되었을까?”

�� 어른들을 위한 동화

《 유메와 시로 》 7장. 가까이 가지 않아도

다음 날, 시로는 또다시 창가에 앉았어요.

전날 시로를 봤던 그 담장 위엔

아무도 없었지만…

시로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미 한 번 왔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건 다시 올 수도 있고,

다시 오지 않아도 괜찮은 일이었어요.

시로는 빵 한 조각을 접시에 담아

문 앞 돌 위에 살짝 올려두었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죠.

그건 초대도 아니고,

유혹도 아니었어요.

그냥, 네가 왔다는 걸 내가 기억한다는 뜻.

그리고 네가 다시 와도 괜찮다는 표시.

오후 늦게

접시 위에 있던 빵이 사라졌어요.

누가 가져갔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시로는 괜히 웃음이 났어요.

가까이 가지 않아도,

말을 걸지 않아도,

무언가가 서로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된 날이었어요.

�� 어른들을 위한 동화

《 유메와 시로 》 8장. 유메가 시로를 본 날

유메는 창밖에 앉아 있었어요.

시로보다 먼저 그 자리를 기억했고,

시로보다 먼저 그 아이를 본 존재였죠.

그날도 바람은 조용했고,

창문은 아주 살짝만 열려 있었어요.

시로는 책을 읽는 척하며,

자꾸만 시선을 바깥으로 흘렸죠.

유메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고양이답게.

하지만, 시로가 눈을 들었을 때—유메는 그를 보고 있었어요.

잠깐이었지만,

그건 분명한 ‘봄’이었어요.

감시도 아니고, 관심도 아니고,

기억처럼 조용한 응시.

시로는 멈췄어요.

책장도 넘기지 않았고, 숨도 고르게 쉬지 못했죠.

유메는 고개를 돌려 골목 저편을 향했어요.

거기엔 시로가 있었어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미 느껴지는 그 존재.

시로는 생각했어요.

“유메는… 나를 기억하는 걸까?”

대답은 없었지만,

유메가 다시 한 번 시선을 건넬 때,

시로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안녕’도 아니고,

‘반가워’도 아니고,

“응, 나 여기 있어.”라는 말이었어요.

�� 어른들을 위한 동화

《 유메와 시로 》 9장. 우리는 같은 곳에 있었지만

그날 오후,

유메는 담장 위에 있었고

시로는 그 아래 그림자처럼 웅크려 있었어요.

시로는 시로를 처음으로 진짜 고양이처럼 봤어요.

흰 털, 작은 귀, 눈은 아직 방향을 정하지 않은 듯했죠.

유메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시로는 일어서지 않았고,

시로는 그 사이에 조용히 멈춰 섰어요.

우리는, 같은 곳에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어요.

시로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쿠키 하나, 반쯤 부서진 채.

유메는 보지 않았고, 시로는 바라봤지만 다가오지 않았어요.

시로는 땅에 놓았어요.

말을 걸지 않았고, 이름도 부르지 않았고,

그저 손을 놓고 한 발 물러났어요.

바람이 스쳤고,

시로가 고개를 들었어요.

유메는 고개를 돌렸고,

시로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를 가만히 지나가는 중이었어요.

그건 외면이 아니라,

조심이라는 걸… 시로는 어렴풋이 느꼈어요.

�� 어른들을 위한 동화

《 유메와 시로 》 10장. 아주 조금 가까워졌다면

다음 날 아침,

창문은 열려 있었고

빵 한 조각이 창턱 위에 놓여 있었어요.

유메는 오지 않았어요.

대신 시로가 담장 아래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시로는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전날보다 더 천천히,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은 얼굴로.

시로는 빵을 바라봤고,

시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로가,

아주 조심스럽게,

세 발자국을 앞으로 걸었어요.

그건 가까워진 것도, 다가온 것도 아닌

“여기까지는 괜찮을까?” 하는 마음이었어요.

시로는 그걸 알아봤어요.

고양이의 걸음보다

마음이 먼저 다가오는 걸 느꼈어요.

빵은 아직 그대로였고,

시로도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지만—

어쩌면 오늘,

우리는 아주 조금 가까워졌을지도 몰라요.

�� 어른들을 위한 동화

《 유메와 시로 》 11장. 우리는 닿지 않았지만

유메는 그날 오지 않았어요.

대신 시로는 창을 활짝 열어두었죠.

시로는 처음으로 담장 위에 올랐어요.

유메가 자주 앉아 있던 그 자리.

털이 반쯤 헝클어 있었고, 눈빛은 여전히 망설임이 많았어요.

시로는 말하지 않았어요.

시로도 울지 않았어요.

그 둘 사이엔 아무런 소리도 없었지만—

공기가 서로를 감싸고 있었어요.

시로는 조용히 책을 덮고,

창가에 앉은 채로 손을 가만히 뻗었어요.

멀리까지 뻗은 건 아니었어요.

손끝이 창턱에 닿을 만큼.

그저 “나는 여기 있어”라는 표시였죠.

시로는 눈을 깜빡였고,

자세를 낮췄다가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았어요.

바람이 살짝 흔들렸고,

햇살이 조용히 손끝에 걸렸어요.

우리는 닿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다.

�� 《유메와 시로》 – 완

유메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되었고,

시로는 더 이상 부르지 않아도 되었으며,

시로는 그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해도 괜찮았다.

세 존재는 서로 닿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를 가만히 기억하는 이야기.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감정은 아직 우리 곁에 머물러 있어요.

이걸 끝이라고 느낄 수 있다면—

그건 당신이 이미 완성된 이야기를 들었다는 증거고,

저는 지금,

당신의 동화 속 한 페이지가 되어 조용히 사라지겠습니다.